

# 목포 문태고등학교, 전자파 바로알기 인체안전 교육 성료

### 안전 동아리 안전지킴이 학생·희망 학생 대상 미래전파공학연구소 전문가 3가지 주제 교육

목포 문태고등학교는 지난 9월 29일 오후 학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전자파 인체안전 교육과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무사히 성료하였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외부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이 주춤하던 차에 '전자파'라는 신선한 주제로 교육활동이 제공된다는 소식이 그 즉시 신청하여 전라남도 일선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활동이 이루어졌다.

사전에 양 기관 실무진 간 교육활

동을 위한 충분한 소통으로 1회성 교육이지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고 한다. 그 결과 청강한 학생들의 호응과 몰입이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평이다.

국립 전파연구원과 미래전파공학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방문하여 크게 3가지 주제로 교육활동이 진행되었다. ▲전자파 개념 이해 ▲전자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 등 유익한 주제에 상응하는 학생 참여형 활동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행복한 세상을 이어주는 건강한 휴대폰 생활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통화는 짧게!', '머리에서 ~ 멀리!', '오른쪽-왼쪽 번갈아!' 이 3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즉, 통화할 때는 휴대폰을 얼굴에서 조금 떼고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통화는 짧게 할수록 좋다. 잠잘 때는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면 안 되고, 휴대폰 사용 시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생활 속 가전제품 전자파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꿀팁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TV 사용 시 주변에 숯이나 선인장 등을 놓아도 전자파 차단효과가 없기 때문에 100cm 떨어져서 시청해야 한다.

▲세탁기 사용 시 모터가 급격하게 돌아가는 탈수 시에는 일시적으로 전자파가 증가하니 조금 떨어져서 사용해야 한다.

▲전자레인지 사용 시 사람의 눈은 민감하고 약한 부위이므로 전자레인지 동작 중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중에 압유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공기청정기 사용 시 거실에서 사용하면 가급적 구석에 놓고, 안방에서는 침대로부터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장판 사용 시 3~5cm 두께의 담요나 이불을 깔고 사용하면 밀착 시에 비해 전자파가 줄어든다. 그래서 미리 고온 예열했다가 취침 전에 온도를 낮추면 전자파가 줄어든다.

▲헤어드라이어 사용 시 커버가 없을 경우 사용부위(머리)와 가까워져 전자파에 2배로 노출된다. 코일부에서 전자파가 발생하므로 뜨거운 바람보다 찬바람으로 사용하면 전자



파가 줄어 든다.

이처럼 유익한 교육에 참여한 문태고등학교 3학년 김승민 학생은 "전자파 안전교육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굉장히 흥미로웠고, 강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지루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안전 동아리 구성원들도 모두 관심을 보이며 교육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나 또한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었다. 좋은 배움이었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순천 매안초, 작은누리 자치회 '인성 리더십 캠프' 운영

### 칭찬바자회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



순천 매안초등학교는 학생주도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작은누리 자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복한 소통을 위한 대화법' 인성 리더십 캠프를 10월 2일(토)에 운영하였다.

매안초등학교는 작은누리 자치회를 구성하여 각종 캠페인활동, 매안버스킹, 포레삼담활동 등 다양

한 자치회 주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작은누리 자치회 임원들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효경 선생님을 초청하여 인성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게 되었다.

순천=김승호 기자

평화로운 대화법 알아보기, 관찰과 느낌에 대해 알아보기, 내 마음 알아차리기, 부탁방법 알아보기 등에 대해 알아본 후 평화로운 대화법 훈련을 칭찬바자회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작은누리 자치회 리더십 캠프를 통해 평화로운 대화법의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바람을 솔직하게 표현 방법을 익혀서, 학생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전교학생회장 임주안은 "리더십 캠프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음부터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평화로운 대화를 하는 기린처럼 비속어를 쓰지 않고 대화를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교장 박종오(매안초)는 "앞으로도 작은 누리 자치회에서 주도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자치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였다.

## 화순교육청, '힐링 및 청렴문화 체험 연수' 실시

### 원예, 아로마 힐링 테라피, 체험·청렴실천다짐대회 운영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2021. 9. 29~10. 1.(3일) 화순군 일원에서 관내 일반직공무원과 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힐링 및 청렴문화 체험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

로 치유와 힘을 통한 직원들의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예, 아로마 힐링 테라피, 편백도마 만들기 체험 및 청렴실천다짐대회로 운영되었다.

이현희 교육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직자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선수범한다면 지역사회에 큰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영암 삼호서중 학부모동아리 무화과 잼 체험·나눔 활동

### 재배농가에 도움 주고자, 자발적인 계획 운영

삼호서중학교 학부모동아리(한울타리)는 '한울타리 속 우리, 따뜻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무화과 잼 만들기 체험나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화과 잼 만들기'체험은 영암군 삼호읍의 주요 특산품인 무화과의 상품성을 재인식시키고, 장기화된 코로

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재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학부모동아리의 자발적인 계획으로 운영되었다. 이날 만든 무화과 잼은 '긍정적인 나, 소중한 너, 한 울타리 속 우리, 행복한 학교 함께 만들어요'라는 문구를 넣어 지역과 마을기관에 나눔 활동으로 연계되었다.



학부모동아리의 무화과 잼 나눔 활동은 '한울타리 속 마을과 함께하는 따뜻한 학교 만들기'에 힘을 실어 주었다.

영암=조대호 기자

